

# 출가-열반절 수행하며 '뜻깊게'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과 중앙신도회(회장 백장기)가 출가절인 2월 27일부터 열반절인 3월 5일까지 '출가열반절 참회발원 정진 주간'으로 선포하고 조계사에서 매일 108배 참회발원 정진 법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전국 사찰에서도 참회기도, 경전독송, 일일출가, 고승초청법회 등의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조계사에서 매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출가열반절 참회발원 정진 법회'는 중앙신도회와 대한불교청년회, 대학불교연합회, 파리미타 등 종단등록 포교·신도단체와 직장·직능 단체들이 대거 참여하

## 조계종 포교원-중앙신도회 정진주간 선포 각 지역 사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며 단계별로 돌아가며 법회를 주관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과 개별 사찰로도 확대되는 추세다.

조계사(02-732-2115)는 이 기간을 '발심정진주간'으로 정하고 5가지 실천사항 지키기, 일일출가, 매일 사시예불 때 108배 참회하기 등의 실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용주사 수원포교당(031-255-2692)은 매일 오전 10시 108대참회

기도를 하며 마지막 날에는 8일간의 기도 공덕을 영가천도제로 회향할 예정이다. 통도사 부산포교원(051-816-2241)은 매일 저녁 7-9시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통해 부처님 출가 정신을 되새기며, 화성 신흥사(031-357-2695)는 3월 7일 '일일출가 수련대회'를 갖는다.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053-474-8228)도 2월 27일-3월 5일을 '부처님 닦기 용맹 정진 주간'으로

선포하고 매일 2시간씩 참선하기, 매일 108배 두 번씩 하기 등의 실천 프로그램을 짜놓고 있다. 창원 성주사(055-262-0108)는 매일 오전 10시 큰스님들을 초청해 법문을 듣고 108배 참회기도를 하는 '니르바나 정진 대법회'를 올해로 7회째 봉행한다.

서울 구룡사(02-575-7766)는 사시예불을 한 시간 앞당겨 매일 오전 9시부터 <금강경> 사경, 108배 참회 등을 계획하고 있고, 대구 법왕사(053-766-3747)도 매일 오전 9시부터 하루에 1000배씩, 8일 동안 1만 배를 하는 '1만배 정진 대법회'를 갖기로 했다. 권형진 기자

## 불교 종립대 졸업식

동국대 서울캠퍼스를 시작으로 불교 종립대학교가 일제히 졸업식을 한다.

동국대 서울캠퍼스는 2월 13일 200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갖고 불교학 관련 박사 3명과 석사 10명을 비롯해 박사 93명, 석사 611명, 학사 2,413명 등 모두 3,11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중앙승가대학교는 19일 오후 2시 본관 대강당(자비관 4층)에서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 불교학과 18명, 역경학과 6명, 포교사회학과 10명, 사회복지학과 31명 등 모두 65명의 스님이 학위를 받을 예정이다.

진각종립 위덕대는 17일 오후 2시 인문관 강당에서 제5회 학위수여식을 열고 학사 556명, 석사 48명 등 총 604명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권형진·박봉영 기자



2월 13일 열린 동국대 서울캠퍼스 졸업식에서 졸업하는 스님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교법사 지위 높여야” 법장 스님 지적

2월 9일 열린 전국교법사(단장 김형중, 명성여고)와 불교교육연합회(회장 홍기삼 동국대 총장) 신년하례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종립학교에서는 교법사를 도덕교사로 취급하지 말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휘와 권한을 줘야 한다”며 교법사들의 지위향상을 강조했다.

잇달아 열린 포교단체 신년하례회에서 조우영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미국과 호주 등 최소한 2곳 정도에는 국제포교사가 안정적인 포교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고, 불교여성개발원 이인자 원장은 “불교여성개발원을 총무원 산하 단체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법장 스님은 “충분히 연구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 “북한산·천성산 가장 큰 피해자는 불교계”

### 이병인 교수 토론회서 지적

북한산·천성산 문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이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공동대표 일민)와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2월 10일과 12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과 조계사 불교대학 4강의실에서 “2003 환경운동 심층평가와 새로운 운동방향” 북한산 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동도로 반대 활동”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이병인 교수(밀양대 환경공학과)는 북한산·천성산 문제로 인해 “나무대도 불교계가 이 시대 환경운동의 전면에 나서게 됐다”고 평가했으나, “불교계의 제1공약을 불교계 스스로 저버리게 되는 잘못된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 자연을 살리고 수행환경을 지킨다는 명분과 실리를 갖고도 지켜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불교계 자신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과장은 “비록 북한산관동도로가 정부와 조계종 총무원이 합의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사회적인 의미는 결코 폄하될 수 없다”며 그 근거로 “관동도에 참여한 주요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사회의 도로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고발을 통한 대응을 해가자는 결의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들었다.

박선경 우이령보존회 사무국장은 저지 운동 과정에서 불교환경연대의 위상과 활동에 대해 “불교환경연대가 독자적인 행보를 하지 못했으며 조계종도 시민단체도 아닌 중간자적 입장”이었으며 “사안별 대응에 차등하다보니 근본 해결에서 멀어질 수 있는 문제, 일시적 대응과 전문성 부족, 연대활동의 느슨한 결합 등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동우 기자

## 5월 봉축열차 운행

### 종단협-철도청 ‘이전’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2월 11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올해 봉축열차를 운행하기로 결의했다. 철도청, 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해 ‘극복과 나눔, 함께함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5월 한 달간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태고종 전대종 전각종 총지종 등 각 종단은 협찬을 약속했다.

그러나 철도청, 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테마열차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봉축열차 운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철도청 등이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이후 화재위험 노출을 이유로 테마열차 운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어 파로 지난해에는 봉축열차가 운행되지 못했다. 박봉영 기자

# 나를 던지니 내 마음이 보여요

/현장에서/ 대불련 겨울수행학교



법당 앞에서 '나무아미타불' 염불과 함께 서로에게 합장을 하는 학생들.

‘조그만 표주박에/ 정성스레 생명을 담아/ 조심스럽게 걸어간다/ 사그락 사그락 사그락...’ - 최재훈(동양대 02학번) 학생의 메모장 중-

2월 11일 충북 괴산 다보수련관 앞마당. 생활 속 수행을 위한 젊은이들의 정진, 대학불교연합회(회장 강지혜) 3박 4일간의 ‘겨울 수행학교’는 작은 컵에 담긴 ‘생명수’를 지켜내려는 서툰 몸짓으로 시작했다.

한 컵의 물이 내 생명이다. 오름마루길에 흔들리고, 쌓인 눈길에 요동치며, 계단에서 점프되기까지 한, 그러나 멈출 때는 다시 고요해지는... 컵 속의 물이 내 인생과 또 내 마음과 닮았다는 생각. 30여명의 학생들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뒷사람을 위해 세 생명을 털어가며 수행에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었다. 이어 진

행된 예불시간. 김태영 법사의 ‘안수정등(岸樹井藤) 강의와 실수’가 열렸다. “넌물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의 실체를 되돌아보고 현재에 감사하는 게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과거에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습(習)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학생들은 수행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첫 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튿날, 이른 새벽부터 법당을 찾은 학생들은 새벽예불 후 하루를 맞이했다. 새벽예불 후 학생들은 강의실에 모여 ‘나무(南無)’의 의미에 대한 강의를 듣고, 부처님께 귀의해 절대 평안에 든다는 의미의 ‘안심입명(安心立命)’ 도반 만들기 게임을 함께 했다.

10여명씩 한 조를 이뤄, 눈을 가리고 정해진 방향 없이 몸을 내

## 전국서 모인 30여명 다보수련원서 수행

맡긴다. 범위를 믿지 못하면 불안함에 몸이 굳어져 결국 땅바닥에 떨어지고, 믿으면 한없이 편안한지는 게임. ‘나무’하는 마음을 간직해 채, 몸과 마음을 맡기는 연습을 한 학생들은 시간이 갈수록 얼굴이 상기되기 시작했다.

불불상념(佛佛相念)의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 염불도 해보고, 부촉염불과 점수행 등을 통해 나와 너의 의미와 본질을 되새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수행을 몸에서 익히고 있었다.

“신입생을 맞이 전에 제 자신부터 돌아보고 올바른 수행법을 익히려고 참가했는데, 수행학교가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후배들에게 회향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지푸르네요.”(김낙의, 숙명여대 02학번)

“수행이 어렵지 않다는 것, 순간순간 인식하지 못한 채 놓쳤던 것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이석재, 충북대 02학번)

4박 5일간의 수행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고 얻은 것은 제 각자이지만 단 한가지. 나를 던지고 나서야 비로소 무한한 응답이 찾아온다는 것만큼은 학생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괴산=김은경 기자

## 한-아세안 청소년 한국서 만난다

### 미래지향적 교류행사 월정사 등 방문하기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현성)가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외교통상부 후원으로 ‘2004 한·아세안 미래지향적 청소년 교류 행사’를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서울과 강원도에서 펼친다.

아세안 10개 회원국 120명의 대학생 대표와 한국 대학생 대표 68명

이 함께할 이번 교류행사는 아시아 공동체 미래건설을 위한 대화와 친선의 장으로 마련된다.

개회식은 2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각각 참가자들을 비롯해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또한 이날 개회식에는 참가국 대표들이 함께 꾸민 ‘한·아세안 우정의 조형물’이 공개되고 외교통상부 최영진 차관의 기조강연과 아세안 회원국 대표 사인 다코 산타나나반 주한팔레이

시아 대사의 축사 등이 이어져 행사를 뜻 깊게 할 예정이다.

10일간 함께할 각각 참가자들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대산 월정사 방문과 겨울스포츠 체험활동, 음식 축제, 한국불교 참선 체험 등을 통해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이외에도 ‘아시아 역사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경희대 정진영 교수(국제관계학)의 강의와 ‘아세안 협력과 지역통합’이란 주제의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쉐레흐 씨의 강의 등을 통해 ‘한·아세안 청소년 선언문’을 채택한다.

김은경 기자

**2004년도 동산불교대학원** 신입생 모집

법사양성을 위한

과목	요일	개설경전	교수	비고(개설과목)
불교학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한문경전)	법화경(3)	박종	법화경(1)(2)(3)(4), 화엄경(1)(2)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신스키트·팔리원전)	팔선승 반야경	김형준	팔선승반야경(1)(2)
능엄경학과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능엄경 보경소(4)	송찬우	능엄경(1)(2)(3)(4)(5)(6)
근본불교학과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근본불교 (수행론 구차제정)	최봉수	근본불교(1)(2)(3) - (6)(7)(8)(9) 금강경 법화경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① 불교대학(정규) 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① 입학원서 1통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2004년 2월 1일~ 2004년 3월 6일(토) [서류전형]	●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 개강일시**  
● 불교학과 : 2004년 3월 8일(월) 오후 7시 ● 근본불교학과 : 2004년 3월 4일(목) 오후 4시  
● 능엄경학과 : 2004년 3월 9일(화) 오후 2시

**4. 입학금** 이십만원

**5. 졸업자격** 3년 과정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한 경전(매주 2장씩)을 이수한 분에게 졸업증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법사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경전)대학원**

**직장인을 위한 동산불교대학(3년과정)**

신규 강좌  
불교문예창작학과 (3년과정) 2004년 3월 10일(수) 오후 2시개강

과목	교수
문학의 이해 - 문예사조사 - 불교학 이해 - 불교문학 - 문예작품감상	· 비학(동양미학) · 불교학 이해 · 장르별 창작실기 · 문예작품감상(학생작품) · 작품창작지도
지도교수	김영무(극작가, 희곡작가협회 부회장) · 신세훈(시인, 한국문학 이사장) 김홍우(동국대 예술대 학장) · 박진시(수필가, 한국수필가협회 이사) 백시종(소설가, 한국문학 이사) · 채상우(문학평론가, 동국대 국문과 출강) 신상성(소설가, 용인대 교수) · 무진경스님(동산불교대학장)

불교한문학과 (3년과정) 정규반 통선반 2004년 3월 4일(목) 오후 7시개강

과목	지도교수
· 한문법(1) 한문법(2) · 신심명, 육조단경 · 명심보감, 장자, 주역, 논어 · 능엄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육조단경	· 이기래 교양선생님 / 천혜스님 / 박희준교수

다도학과 (3년과정) 2004년 3월 9일(화) 오후 2시개강

과목	지도교수
· 한국사문화사(중국, 일본, 유럽) · 제다학(1)(2)(3) · 한국의현대사 · 다화정신 · 다구학 · 차와선 · 차도문화 · 차시문학 · 차시문학 · 차시문학 · 차시문학 · 차시문학	· 김익수교수(문화재전문위원) · 법인스님(한국사불사불사연구회 회장) · 김익수교수(전 동국대)

불교미술학과 (3년과정) 2004년 3월 10일(수) 오후 2시개강

이론실기	지도교수
· 단청이론, 실기 · 기초 선구기 · 불화이론, 실기 · 사찰초, 보살초, 여예초그리기 · 사찰이론, 실기	· 윤영수교수(문화재전문위원) · 법인스님(한국사불사불사연구회 회장) · 김익수교수(전 동국대)

☎ 원서교부처 : 본 대학 사무국 ☎ 02)732-1206-8 / FAX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2004년도 도시생활 포교를 위한(2년과정) 불교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정규과정 (2년)	실습원 : 무진경스님 전통 의식 작법 실습	이론원 : 심만춘스님 전통 의식 작법 이론
야간과정 (1년)	지도법사 : 양성도	
바라과정 (2년)	요갑바라 · 천수바라 · 나비춤 · 전통천도작법 교육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 정규반 50명(2년) ● 바라반 30명(2년) ● 야간반 30명(1년)	● 한국불교의식 희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2004년 3월 6일 까지 (토요일)	● 매주 토요일(정규반) 오후 1:00 - 3:00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야간반)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바라반)

**3. 개강일시** 2004년 3월 6일(토) 오후 1시 (정규반) 10일(수) 오후 7시 (야간반) 5일(금) 오후 3시 (바라반)

**4. 입학금** 입십만원

**5.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교육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6. 특 전**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불교의식·교육도량 동산불교 의식교육원**